

# 청년고용 한파에 광주·전남 고용률 '뚝'

### 광주 남구 청년 고용률 34.3%

### 전남 신안·완도 제외 전반적 약세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크게 늘어

청년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광주·전남 고용 지표도 일제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 부진과 비경제활동인구 확대가 맞물리며 지역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전국 구지역(7개 특광역시 구 단위) 고용률은 58.8%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고, 실업률은 3.6%로 0.2%p 상승했다. 9개 도의 시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과 같았고, 군지역 고용률은 68.9%로 0.5%p 떨어졌다.

전국적인 고용 둔화 흐름 속에 광주·전남의 고

용 시장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광주 5개 구 가운데 고용률 상위 지역은 광산구(62.8%)였다. 광산구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p 늘었다. 동구 역시 0.5%p 증가했지만 광주 내 고용률 하위 지역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는 구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주 서구의 15~29세 고용률은 41.8%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구는 34.3%에 그쳤다.

광주의 비경제활동인구 상하위 지역의 차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광주 동구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9.8%로 가장 낮은 광산구(35.4%)와 4.4%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광주 5개 자치구를 가리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이른바 '쉬었음' 인구의 급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남도내 고용률 상위 지역은 신안(78.2%)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했지만 하위는 목포

(57.7%)로 격차가 20.5%p에 달했다.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도시 지역은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전남의 고용률은 강진(3.4%p), 해남(2.0%p), 영광(1.4%p), 완도(0.1%p)만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완도는 62.7%로 높은 편이었지만 답양은 19.0%로 크게 낮았다. 특히 목포시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41.0%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고용지표 하락은 청년층 고용 기반이 취약하고 도시 지역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도 '쉬었음' 인구는 시·군 지역에서 각각 5만 6000명, 1만 6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를 포함한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시 지역에서 5만 9000명, 군 지역에서 3만명 늘어났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은행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도 체결

광주은행은 24일 "광주 복구청에서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복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8억 5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며, 광주시 북구는 1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복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광주은행은 또 복구 소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도 지원한다. 서민금융 신규대출 종류로는 포용금융특별대출,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KJB새희망을 씨앗가 있다.

복구청은 해당 대출들을 취급한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예산지원금액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효성티앤씨, 카카오뱅크와 '세이프 레이스' 친환경 동행

### 친환경 기부 마라톤 파트너 참여 재활용 섬유 '리젠'으로 물품 후원 자원 선순환 더해 ESG 실천 강화

효성티앤씨가 친환경 기부 마라톤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행보를 강화한다.

효성티앤씨는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이프 레이스(Save Race) 2026'에 친환경 경 요소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사 전반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효성티앤씨는 협약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티셔츠와 가방 등 공식 기념품을 자사 친환경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으로 제작한다. 행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형 현수막과 배너에도 리젠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종료 후에는 현수막과 배너를 수거해 새로운 기념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도입하고 일회성 소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리젠은 2008년 출시된 페페트병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다. 일반 폴리에스터 대비 생산 과정에서 약 67%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량도 약 80%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섬유업계 최초로



유소라(오른쪽) 효성티앤씨 ESG 경영담당 상무와 이형주 카카오뱅크 시그니처가 24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세이프레이스 2026' 공식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그룹 제공>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사 현장은 페페트병 수거함이 설치돼 참가자들이 사용한 페트병을 수거함에 넣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수거된 페트병은 다시 리젠 섬유로 재활용되는 구조다.

효성티앤씨 관계자는 "리젠을 중심으로 친환경 섬유 시장을 선도해 온 만큼 이번 세이프 레이스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 실천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예정된 세이프 레이스는 2024년부터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온 기부 마라톤 행사다.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전 세계 기후위기 피해 아동 지원에 사용된다. 올해 대회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나눔을 결합한 대표적인 ESG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가짜 다이어트 식품 무더기 적발 소비자원 '체증감소 효과 없어'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가 유행한 이후 '가짜 다이어트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체증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이지만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나비정' 등 비만 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그중 12개 제품은 식육 조절과 관련된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GLP-1, 디에타민 등 관련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제품 4개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적어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 광고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제품 중 5개는 광고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광고에서는 의약품 가운을 입은 AI 의사가 해당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설명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복고풍 의상에 메이크업·MZ세대들의 '레트로 웨딩' 24일 오후 광주 동구 무등파크호텔에서 광주관광공사와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레트로 환승여행 : 응답할랑가? 1988' 시범 프로그램이 열린 가운데 8090년대 복고풍 의상과 메이크업을 한 MZ세대 참가자들이 실제 결혼식을 방불케 하는 '레트로 웨딩' 퍼포먼스를 즐기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GICON 지원 제작 애니 '강철소방대...' 다음달부터 EBS 방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CG활용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Z'가 방영된다"고 24일 밝혔다.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는 지난 2016년 EBS 방영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 누적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한 어린이 안전교육 애니메이션으로 화재·재난·생활 안전을 주제로 전국 어린이집과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등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신작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Z는 광주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버튼과 EBS, 인도 LNL VFX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하고, ㈜로간벤처스가 투자했다.

해당 작품은 다음달 2일부터 EBS1TV에서 매주 월·화요일 오전에 방송되며, 일요일 오전에는 2편 연속 방영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소비심리 9개월 연속 '양호'

### 2월 CCSI 115.7... 3.7P 상승

광주·전남지역 소비심리가 9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다양한 민생 안정 정책들과 물가 안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5.7로 전월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전국(112.1)보다 높고, 상승폭(+1.3p)도 큰 수준이다.

CCSI는 지난 20년간의 장기 평균치를 기준치

100으로 두고,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광주·전남 CCSI는 9개월 연속 기준치보다 높고,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01.4를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가장 침체했던 지역민들의 소비심리를 돌려 세웠고, 이후 10월 111.2, 12월 112.7 등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CCSI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들도 대부분 상승했다. 구성지수의 기여도별로 가계수입전망이 1.5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생활형편전망(+1.0p), 현재경기판단(+0.7p), 현재생활형편(+0.3p), 향후경기전망(+0.2p) 등도 올랐다. 소비지출전망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훈련 설명회

### 취·창업 역량 강화 5대 직종 안내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4일 "2026년 직업교육훈련 직종설명회"를 열고 올해 운영되는 전문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역 여성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운영되는 5대 직업훈련 과정은 사회복지행정실무, 간호전문인력양성과정, 도배실무자 양성과정, K-푸드 전문가 과정, 인공지능(AI) 융합오

피스마스터 양성 과정 등이다. 각 과정은 교육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실습, 기업 매칭, 취업 상담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올해 과정은 AI·돌봄·기술 기능 분야 등 신수요 기반 직종 확대로 지역 여성 구직자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희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올해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의 교육 설계와 기업 수요 기반의 취업 매칭을 강화해 여성들의 안정적 직업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육천피' 앞두고 주가지수 하락 베팅도 늘어

### 대차거래 잔고 150조원 육박

코스피 6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주가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차거래 잔고 금액은 전날 기준 149조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38조 6285억원에서 13거래일 만에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통상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계 21조87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21조 1674억원 대비 7046억원 증가했다.

공매도 후 미상환 불량인 순보유 잔고 금액이 크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

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락에 베팅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은 국내 주가지수, 특히 코스피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자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11.97% 상승했으며, 24일 5969.64로 장을 마치면서 6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969.64 (+123.55)
↑ 코스닥	1165.00 (+13.01)
↑ 금리(국고채 3년)	3.158 (+0.004)
↑ 환율(US D)	1446.10 (+6.10)
<small>&lt;오후 4시 57분 기준&gt;</small>	